



조원용 / 정회원,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주)
by Cho, Won-yong, KIRA

약력

- 조선대 졸업, 고려대 대학원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프레스센터 편집국장
- 안산선대학 겸임교수

승례문 화재를 바라보며...

Seeing the Scene of Sungnyemun on Fire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일어나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인명의 피해는 없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국보 1호 승례문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고 끔찍하게 소실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온갖 흥망성쇠의 역사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지켜왔던 승례문은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던 역사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어둠속에서 화마에 휩싸여 타들어가는 것을 가슴조이며 바라볼 수 밖에 없던 그 참담함을 어찌 글로 다 쓸 수 있으랴. 불과 한 달 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듯 또 다시 엄청난 재난의 악몽이 연속되는 것은 하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2005년 낙산사 화재에 이어 2006년 창경궁 문정전, 수원 화성 서장대 화재 그리고 2008년 수원 화성 역새발 화재 등 거의 매년 목조문화재 관련 화재사고가 일어났지만 2006년 5월에 마련한 '문화재별 화재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이외에는 뚜렷한 방재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방화를 미리 차단하는 게 최선의 예방 대책"이라고 말하는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은 오히려 푸념에 가까울 정도다. 굳이 민족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쟁이후 개발정책으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아주 오래된' 우리의 것을 그동안 잘 지켜왔다. 아니 잘 지켜온 것처럼 느꼈다. 어쩌면 다른 일들도 바쁘고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그냥 그대로 잘 있어줘서 고마웠던 심정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승례문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밝혀졌다. 토지 보상문제로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2년 전 창경궁방화에 이어 또 문화재에 방화를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사육을 앞세워 공익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무지는 이제 어른 아이 구별이 없는 것 같다. 지난 2005년 이후 승례문은 일반에게 개방이 되어서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대중이 우리 문화재를 좀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한 의도는 환영하지만, 그에 따른 보안도 개방 못지않게 철저히 했어야 했다. 일반 시설물도 아닌 대한민국 국보 1호 문화재를 월 30만원의 무인 경비업체에게 위탁하는 수준만으로 허술하게 지켜왔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아직도 문화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국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앞으로 자라날 후세를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문화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밤이면 노숙인들의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알고 이미 1년 전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한 젊은이는 문화관광부에 승례문의 방화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울림으로 끝난 것이다. 이 또한 탁상행정의 한 전형이리라.

범인이 빨리 잡혀서 다행이지만, 사실 이번 승례문 화재는 개인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

건축물의 경우 매매를 할 때 건축물 구조의 안전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다.

건축에 대한 전문 식견이 없는 중개사가 그 확인을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

어느 누구도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일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는 이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니다. 또한 특정 인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비롯한 과거와 현대의 모든 건축물들이 가진 근원적 한계 때문이다.

건축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건축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오래된 역사적인 건축물은 바라보거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쉽고 행복을 주던 건축이 구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되기도 한다. 이 또한 우리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그리고, 화성 씨랜드 화재,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용하면서 노화가 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모든 것은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 자동차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어 안전과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운행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자동차도 이렇진대 건축물은 그 유지관리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 그래서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으며 그 또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온 나라가 예견된 인재라고 떠들썩하니 난리가 난다.

인재가 예견된다면 미리 예방해야하지 않겠나?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보험금 얼마씩 지급하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군대에서 40명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사단장이나 국방부장관이 무사했겠는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40명이 죽는다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 건축물의 경우 매매를 할 때 건축물 구조의 안전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일 뿐이다. 건축에 대한 전문 식견이 없는 중개사가 그 확인을 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 어느 누구도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일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는 이제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숭례문이 화염 속에 자신을 태워가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땅에 다시는 이러한 참담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현대건축물은 또 그 적절한 방식대로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 건축은 우리 인간의 삶과 행복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